

방향을 멈추어야 할 대학 사회



노성만
전남대 총장

새 천년의 시대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될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학교육도 이러한 사회를 앞서 이끌면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비롯, 개혁적인 많은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정책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정 지원과 여러 가지 승인권의 뒷받침 속에 정책실현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대학도 교육부의 정책을 외면하거나 등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년 변경된 기준에 맞춰 대학평가에 대비하고 그 평가점수에 얽매이면서 대학들은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점수벌레가 되어가고 있다.

새 천년을 준비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향식으로, 하나의 틀에 획일화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여건과의 접합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대학교육 현장은 많은 모순 속에서 생경한 이론의 반복적인 실험장이 되고 있지만 우려되는 바가 크다. 한편에서는 가상대학의 설립과 운영지침을 준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철저한 출석 점검을 대학평가의 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고, 전자출판과 전자도서관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는데도 단행본 장서수로 대학도서관을 평가하고 있으며, 외국 유명 학술지에 논문이 몇 편 게재되었는가 연구능력 평가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고 그 논문의 질이나 우리 문화와 전통에 기반한 논문들의 특성은 무시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매년 바뀌는 입시제도에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은 잘못된 교육제도를 탓하며 고통에 떨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학부제 도입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회오리로 조용할 날이 없다.

이런 상태로 우리 나라의 대학들이 새 천년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맞이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우리 대학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정하고 그 이정표에 따라

확실한 새 천년의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대단히 진부한 질문인 것 같지만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한다. 여러 가지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대학은 “인류의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인류의 문제란 단순히 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그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까지를 포괄하는 문제로, 인류의 생존과 공존에 위협을 주는 모든 문제의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그 문제를 개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그럴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은 인간의 지속적인 생존과 공존에 대하여 쉽지는 않으나 열정과 애정을 갖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학습할 수 있는 장소이고 조직이며, 또 이 조직은 이를 위해 잘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대학도 이제는 어떠한 거친 환경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대학의 보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항상 공존하며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매시간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는 항성(恒星)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학의 의사결정이 내부 구성원의 폭 넓은 합의와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특히 재정 및 인사권을 대학이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로 대학들의 지나친 응용학문 위주의 운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인류 문제의 본질은 철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을 통하여 다루어질 대상인데 이것을 외면한 채, 응용학문에 너무 치우치고 있어 양자의 조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공립 대학에서는 인문사회과학에 대하여 과감하게 투자해야 하고, 학문 분야의 치우침도 앞서서 수정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학들도 이러한 방향을 그만두어야 한다. 대학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대학의 비전과 이정표를 설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 천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이 늦어진 대학들은 새 천년의 주인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혼돈의 시기일수록 초심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대학 제도의 초심은 무엇일까? 대학정책 책임자, 대학경영 책임자, 대학의 구성원 그리고 사회는 모두 함께 대학의 본질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지난날을 자성하고 대학 출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구나 변화가 크게 오고 있는데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영원히 낙후되고 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44**